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세례를 베풀기에 앞서서 모든 교인들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주일은 할머니 한 분이 세례를 받으려 되어 있었죠. 할머니의 며느리는 그 전날 할머니에게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니, 만일 목사님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무조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라고 대답하세요. 아시겠어요?” 할머니는 잘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안심이 안되어서 재차 물었죠. 그러자 할머니는 역정을 내면서 말했어요. “알아들었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드디어 그 다음날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세례 문답이 시작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은 교인들 앞에서 며느리가 말했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얼른 대답했어요. “예,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한 할머니는 며느리가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니깐, 며느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 며느리의 죄 때문만도 아니고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

오늘 말씀에 배경이 되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사울왕이 죽은 후에 7년에 걸친 내란을 겪었습니다. 남유다 지파는 다윗의 편에 섰고, 북이스라엘은 사울 일가의 편에 서서 동족간에

사할을 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사울 일가와의 오랜 내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다윗이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사울왕에게서 박해받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 각처로 10 여년을 도망다니다가, 사울왕의 죽음 이후 유다 지파의 왕으로 두번째 기름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기 몇년이 지났고, 세 번째 기름부음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전 민족 위에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다시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실현되기까지는 약 20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인기를 얻어 승승장구하다가 하루 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연단되고 또 연단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 1.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에게 이러한 평안이 있기까지 그는 수십년을 전쟁터에서 싸워야 했고, 오랜시간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했던 다윗도 이제는 평안을, 다른 말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아픔과 상처, 고난과 두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대해도 지나가구요, 믿음없이 대해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꼭 귀한 복을 더하심을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번째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히 살게하시는 그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거나 나 자신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있길 원합니다. 다윗은 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 2.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던 다윗은, 어느날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견딜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은 자기 왕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장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왕궁보다 더 큰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다윗이었으니까 당연히 품을 수 있는 생각이었죠. 이와같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던 건 지극히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의 동기에 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이동식 장막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성전 건축을 일러주셨을 겁니다. 마치, 장막을 지을 때나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민이 된지 400년이 지났으니, 언젠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할 것임을 감안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이 역대상에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2:8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비롯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은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도 전에, 인간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바치려 했던 다윗의 순수하고도 신실한 믿음만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복을 더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부터 자신을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할 아들을 위해 건축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심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사람들은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을 찾고, 누릴 것을 찾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 하나님께 죄송한 맘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마다, 참된 안식이 있길 원하고, 또한 그 때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시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두번째로, 장막과 성막 그리고 성전과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다시한번 새겨두기 원합니다. 6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던 것처럼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다 했습니다)

장막과 성막을 영어로 테버너클이라고 하지요. 성막(tabanacle) [미쉬칸] “거하다, 살다!” 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성막은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죄많은 인간을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상징적으로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어주는 장소였습니다. 상징적, 제한적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성막을 아무나 혹은 아무때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된 후 다윗이 그토록 염원했던 건물 형태의 성전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게 되는데, 이 성전 내부를 성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소’라고 하면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이죠. 성소 내부 중에서도 특별히 휘장(curtain)으로 구별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지극히 성스러운 곳-The Holy of Holies’ 이라는 의미의 ‘지성소’ 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주 두꺼운 휘장(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 전통 문헌에 따르면, 이 휘장의 두께는 8~9 인치 (약 20 센티, 매우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져 있다) 높이는 60 피트 (약 18 미터), 넓이는 20 피트 (6 미터) 입니다. 이렇게 휘장이 크고 높고 무거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이 크고 무겁다는 겁니다. 그 벽이 높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 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거예요. 그래서 그 수 천 년 동안 금기의 장소가 온 세상에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 앞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 장에 그 중대성을 이렇게 설명하죠. '매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로 휘장 안으로 속죄를 얻으러 들어가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once for all) 자기 피를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고 했습니다. 즉, 예수의 몸이 찢어짐으로써 '성막' 건립 이래로 행해졌던 수많은 희생제사들을 항구적으로 대신할 단 한번의 희생제가 드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 인간이 죄를 짐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깨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앞서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용기내서 주님의 손을 잡았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이미 와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용기를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맘 먹고 주님께 마음 문을 열었다고 자부하지만, 주님께서 문 앞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막과 장막 그리고 성전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심 바라는데 있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겠지!!!??? 가령,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나중에 자녀에게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자녀에게 잘 해야지 혹은 이녀석에게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합니까? 물론 간혹 그런 부모님들도 있긴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원래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리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도 두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돈많이 벌어서 저한테 좋은 것 사주고 맛난것 대접해주고 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보다 하루 빨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원하고, 지금도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제게 베푸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심지어 한 부모의 입장에서든 이리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게 있으셔서 ‘예배생활 잘해라, 봉사하고, 헌신해라’ 하시겠습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보고 나를 위해 좋은 집 하나 지어달라고 하더냐’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장막에 다니셨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담긴 큰 사랑을 오늘 이시간에도 우리 각자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성경말씀 배우기를 힘써서 하고, 참된 섬김과 나눔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 말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복된 자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